

정보통신공학 학제전공

학교홈페이지 : ktep.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350-8541

개요

정보통신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기반으로서 다양한 경제 사회 활동의 기본수단이다. 정보통신의 형태와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에 의한 효율적인 정보전달과 응용을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시스템(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ystems)의 수요와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망의 구현(networking)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용(networked applications)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능력을 겸비한 시스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통신공학, 전자공학 뿐만 아니라 전산학, 산업공학, 수리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을 근간으로 하는 학제적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이를 위한 전문교육 및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공학 학제전공이 관련학과의 협동 교육과정으로 1998년도에 개설되었다.

정보통신의 근간은 정보통신망이다. 본 학제전공은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네트워킹 방법,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통신 응용 및 서비스 방법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산학과,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및 수리과학과가 본 전공의 참여학과이며, 참여학과의 참여교수들이 협력해서 강의와 논문지도를 담당한다.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시스템 교육을 위해서 참여학과의 기본교과목과 학제전공의 응용, 전문 교과목으로 구성된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적극적인 산·학 협력사업 등을 통해서 정보통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선도적인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전공지원 및 학생선발은 일반적인 입시과정에 의해 진행된다. 참여학과(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산학과,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수리과학과) 학생은 입학후에 학제전공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다. 또한 본 학제전공에는 정보통신 프로그램(CTEP)*에 의한 과학기술원 장학생(CTEP 장학생) 선발제도가 있다.

※ 정보통신 프로그램 (CTEP)

정보통신 학제전공에 의한 고급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학 협력에 의한 정보통신 프로그램 (Cooperative Telecommunication Education Program, CTEP)이 1998년도에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 학제전공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인터넷, 고속 및 이동성으로 특징되는 차세대 정보통신 시스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시스템 엔지니어의 교육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전송, 네트워킹 및 네트워크 응용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석사, 박사과정의 CTEP 장학생선발, 교육연구비 지원, 정보통신 교육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CTEP 장학생은 재학중의 장학금과 졸업후의 취업 특전이 있으며, 취업기관의 복무기한은 학위취득기간과 동일하다. (단, 2002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석사졸업자 중 회사의 병역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학위취득기간의 2배를 복무해야 함)